

## 1980년대 중국여성소설에 나타난 섹슈얼리티 장지에(张洁), 왕안이(王安忆), 티에닝(铁凝)의 작품을 중심으로

최은정\*

### 〈국문초록〉

본고는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1980년대 중국여성소설을 읽어보았다. 그 중심 대상은 장지에, 왕안이, 티에닝의 작품이다. 이들의 작품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도덕/반도덕이 부딪히는 장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반도덕적이자 반사회적인 것으로 전락함으로써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전통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인성의 회복이라는 1980년대 중국의 문학적 지향점에 비추어 볼 때, 섹슈얼리티는 상실한 인간성을 귀환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로 볼 때, 이들이 체현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는 본능적인 욕망과 도덕적인 규범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민을 짚어내는 상징이다. 이는 곧 이들이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해 인간성 탐색을 구현함으로써 여성담론을 시대적인 담론과 융합하였음을 의미한다. 여성문제에 천착했던 1920년대 여성작가들이나 시대문제에 주목했던 ‘17년 시기(1949- 1966)’의 여성작가들과 비교해 보면, 이들은 여성서사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1980년대, 여성섹슈얼리티, 도덕/반도덕, 욕망, 인성

\* 계명대학교 중국어문학과 교수  
chej0117@kmu.ac.kr

『젠더와 문화』 제2권 2호(2009): pp.7-29  
© 2009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 1. 들어가면서

주지하다시피, 봉건윤리관념 하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재생산 또는 남성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만 존재했을 뿐, 독립적인 개체가 지니는 욕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저우쥘린(周作人), 1998: 19). 오히려 여성이 자신의 쾌락을 위한 욕망을 나타내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경계해야 할 일로 여겨졌다. 여성 섹슈얼리티는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왜곡되고 과장되어, 수동적이고 훈련이 필요한 이미지로 부각되었고, 여성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기도 했다(최수완, 2006: 3). 문학 작품에서 오랫동안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부정되거나 추악한 것으로 그려지고, 여성은 현모양처 또는 탕녀라는 두 가지의 의미로만 나타난 것은 이를 잘 설명해 준다. 이처럼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억압되거나 금지되거나 소외되어 항상 주변에 머물러 왔다.

5.4 신문화운동과 더불어 중국에서 인간의 발견이 중심 담론으로 떠오르면서 여성의 발견은 그 한 축을 차지하게 되었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새롭게 인지되기 시작하였다.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새로운 자각은 곧 여성해방, 나아가 인간해방을 구현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나타났다. 중국현대문학에서 이는 자유연애 추구, 봉건혼인 거부 등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는데, 1920년대 여성작가들이 이의 중심에 서게 된다. 이들은 작품을 통해 도구화된 여성 섹슈얼리티를 거부하고 성적 주체로서의 여성자아를 실현하고자 노력했다. 펑웬권(冯沅君), 멩링(丁玲) 등이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이들은 동시대 여성작가들에 비해 훨씬 더 과감하게 여성의 성과 육체를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성을 죄악시키는 구사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기에 작품에 등

장하는 여주인공은 자신의 사랑에 신성함과 순결함을 끊임없이 덧대는가 하면(평웬권), 영육의 불일치로 인해 끊임없이 고민(땡링)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5.4' 이후 전통 관념을 거부하고 반항하고자 하면서도 여기에서 결연하게 벗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의 공통적인 현상이기도 했다. 즉, 전통과 반전통의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목소리가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이 혁명과 이념으로 치환되던 30년대 초중반에는 바이웨이(白薇) 같은 작가들이 정치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비극을 통해 정치적 사회적 혁명이 여성해방의 방편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녀의 이러한 고민은 혁명을 통한 인간해방의 당위성에 관한 물음이기도 했다. 민족적, 계급적 갈등과 모순에 시달리던 30년대 말에서 40년대, 인간의 욕망이나 성에 관한 주제가 다소 제약을 받았던 가운데에서도 장아이링(张爱玲), 메이냥(梅娘), 쑤칭(苏青) 같은 여성 작가들은 각기 다양한 각도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자유롭게 묘사했다. 특히 쑤칭은 사랑과 정욕을 분리시키고, 본능적인 욕망으로서의 여성 섹슈얼리티를 수립함으로써 전시대 여성작가들의 고민을 풀어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성을 판다는 혹독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성잉(盛英), 1995: 520). 쑤칭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20년대 인간해방과 함께 시작된 여성해방의 물결이 여전히 미약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혁명을 통한 사회해방과 여성해방을 누구보다도 기대했던 땡링도 전진(贞贞; 『내가 샤촌에 있을 때(我在夏村的时候)』)과 루핑(陆萍; 『병원에서(在医院中)』)등 40년대 중국 여성이 체현하는 섹슈얼리티를 통해 중국 사회가 여전히 봉건제도의 그늘 아래 놓여 있음을 나타냈다.

그로부터 10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중국 문단에서 여성 섹슈얼리티에 관한 담론은 결코 낮설지 않다. 웨이웨이(卫慧)를 비롯한 일련의 젊은 여성작가들의 소설 창작은 '신체서사'라는 평가를 얻으면서 문단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무즈메이 현상(木子美现象)”<sup>1)</sup>은 중국 문단에서 섹슈얼리티의 지평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 할 것이다. 비록 여성작가들이 중심을 이룬 것은 아니지만, 지식과 규범과 전통 등에 의한 속박을 거부하고 몸이 느끼는 감정을 바탕으로 한 창작을 기치로 하여 창간된 시 전문지 『下半身』은 인간의 사유가 이성과 합리성의 영역을 넘어서서 욕망과 상상력 등을 근간으로 하여 확장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즉 “나는 욕망한다. 고로 존재한다”(로지 브라이도티, 2004: 13)의 철학적 사유가 중국사회에도 깊이 스며들어가고 있는 것이다.<sup>2)</sup>

하지만, 오랫동안 문학이 정치에 예속되어 오는 가운데 이념과 사상을 중시하는 경향이 은연 중 중국문단을 지배해 오면서, 연구자들은 문학의 정신적 도덕적 가치를 우위에 두고 문학 속에서의 섹슈얼리티가 이러한 문학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해왔으며, 심지어 이를 통속성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섹슈얼리티가 성적인 욕망들, 성적인 정체성 및 성적 실천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적인 감정과 성적으로 맺게 되는 관계들을 모두 포괄한다고 할 때(조영미, 1999: 24), 섹슈얼리티는 자아의 구성 방식과 사회와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한다.<sup>3)</sup> 이는 곧 작품에 투영된 섹슈얼리티를 통해

1) 2003년 20대 초반으로 알려진 한 여성이 무즈메이(木子美)라는 필명으로 인터넷에 자신의 성경험을 일기 형식으로 올리면서 네티즌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하루 방문자가 6000여명을 넘어서는 이 사이트는 방문자가 가장 많은 개인 사이트 중 하나가 되었다. 점차 사회적인 관심을 끌면서 찬반 논란이 거세어졌는데, 이를 가리켜 “무즈메이 현상(木子美现象)”이라 한다.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옹호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던 그녀의 일기는 후에 『遗情书』라는 제목으로 출간되었다.

2) 혹자는 “사상해방”이 중국 관방의 구호라면 “몸 해방”은 민간의 분위기를 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몸 해방 운동”을 현대사회의 한 특징으로 보았다. 耿飏, 「下半身运动」, [www.zydg.net/magazine/article](http://www.zydg.net/magazine/article)

3) 기든스의 논의에 따르면 섹슈얼리티는 신체와 자기 정체성, 그리고 사회 규범이 일차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는 섹슈얼리티를 개인의 일상적인 감정과 제도가 뒤얽혀 있는 관계망으로 보았다(앤소니 기든스 지음, 배은경, 황정

작가의 자아의식 및 한 사회와 시대의 변모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는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20세기 중국여성서사를 읽어보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1980년대 작품을 그 주요대상으로 한다. 이 시기 여성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및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여성의식을 함께 고찰해보고자 한다.<sup>4)</sup> 이 때 장지에, 왕안이, 티에닝의 1980년대 여성서사가 그 중심 대상이 될 것인 바, 장지에는 『사랑, 잊을 수 없는 것(爱, 是不能忘记的)』(1979), 『방주(方舟)』(1981), 『조모록(祖母录)』(1984)등 일련의 작품에서 성과 사랑을 개인의 행복과 가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탐색해 들어간 대표적인 작가이며, 왕안이는 ‘삼련(三恋)』(『황산의 사랑(荒山之恋)』(1986), 『작은 도시의 사랑(小城之恋)』(1986), 『금수곡의 사랑(锦繡谷之恋)』(1987))을 통해 ‘성애(性爱)소설’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당대 중국문단에 부여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고, 티에닝 역시 『보릿짚더미(麦秸垛)』(1986), 『면화더미(棉花垛)』(1988), 『장미문(玫瑰门)』(1989) 등의 작품을 통해 여성 섹슈얼리티의 다양한 측면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

미 역,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친밀성의 구조변동』, 새물결, 2000, 29-47 참고).

4) 사실 중국여성서사에 나타나는 섹슈얼리티는 연구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개별 작가와 작품에 치우쳐 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섹슈얼리티의 재현 양상 및 그 사회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둔 연구는 드물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읽은 연구가로 자오수친(趙樹勤)이 있다. 그녀의 연구는 1990년대에 치우친 면이 없지 않지만, 본고의 논지 전개에 많은 시사점을 주었다.

## 2. 이상적인 사랑의 추구와 여성 욕망의 부재

중국에서 1980년대는 인성이 귀환하는 시대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래로 좌익편향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해 인성은 정치나 혁명에 종속되어 있었고, 이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정점에 다다랐다. 문학에서 성과 사랑은 혁명에 가려져 있거나 혁명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쳐 있었던 고로, 이 시기의 주류문학은 ‘无爱文学’, ‘无性文学’라고 불리기도 한다(쉬즈잉(許志英), 2002: 894). 문화대혁명의 종결과 함께 신시기의 사상 해방은 몸의 해방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는 문학에서 애정서사로 가시화되었다. 여성작가들 또한 여성의 시각에서 상실된 성과 사랑을 문학 속에 되살려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1980년대 초기 애정서사는 문혁이 남긴 상처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쉬즈잉, 2002: 908)으로, 개인의 행복이나 가치 실현을 위한 독립적인 형태는 아니었다. 개인의 행복이나 가치 실현을 위한 형태로서의 애정서사는 장지예에 와서 비로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주칭(朱青)).

『사랑, 잊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의 애정서사의 서막을 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자오수친). 이 작품에서 작가는 딸 산산(珊珊)과 어머니 종위(鍾雨)가 보여주는 성과 사랑을 통해 사랑의 의미를 탐색한다. 종위는 사랑과 상관없이 결혼한 뒤 남편과 일찍 헤어지고, 아내가 있는 당 간부와 사랑에 빠져 이 사랑을 평생 간직하고 있다. 딸인 산산은 사랑과 결혼의 제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그녀는 엄마의 사랑을 보면서 “차라리 혼자 살지언정 사랑 없는 결혼에 얽매이지는 않겠다”고 다짐하고, 독신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진실한 사랑을 기다리고 찾겠다고 결심한

다. 이는 작가가 지향하는 여성, 아니 인간의 사랑에 관한 작가의 지향점일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사랑에서 욕망은 자각되지도 존재하지도 않는다. 특히 중위의 경우 정신적 사랑을 미화하고 숭고한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욕망을 대체하고 있다. 남자와 유일하게 산보했던 길을 평생 마음에 담고 한밤중에 혼자 서성이는 모습이나 역에 나가 출장 갔던 남자를 기다리는 모습에는 분명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그녀의 욕망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희생하면서 철저히 영육을 분리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서”라는 그녀의 고백으로 미루어 보건대, 혼외련에 대한 도덕적 갈등이 욕망을 회피하게 만든 것이다. 이러한 그녀의 사랑은 도덕적이고 개념화된 사랑에 다름 아니다. 이 때 여성 섹슈얼리티는 도덕과 반도덕이 갈등하는 장으로 작용하고, 장지에게 도덕관념에 순응함으로써 여성의 욕망은 가려지고 만 것이다.

육체의 부재와 여성의 자기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장지에식의 사랑은 『조모록』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여주인공 청링얼(曾令兒)의 20여년에 걸친 삶의 여정을 통해 여성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청링얼은 학창 시절 사랑하는 남자 쉰웨이(左葳)를 위해 대신 우과분자의 누명을 쓰고 심한 고초를 당했고, 온갖 멸시와 모욕 가운데에서도 그의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평생을 살았다. 게다가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그녀의 삶은 질곡 그 자체이다. 반면, 쉰웨이는 그들 두 사람의 동창생이었던 루베이허(卢北河)와 결혼한 뒤, 그녀의 보이지 않는 도움 하에 새로운 인생을 산다. 이런 쉰웨이에 대해 그녀는 하등의 원망도 없이 오직 그가 자신에게 아들 타오타오(陶陶)를 남겨준 것만 감사하며 “그에 대한 감정에 있어서, 이전보다 더 넓은 의미의 사랑만 남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리고 박애와 자기희생으로써 자신의 고통을 극복해낸다. 장지에는 이러한 그녀에 대해 ‘무한한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인격적인 가치를 부여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장지애가 추구하는 사랑은 헌신과 자기희생이 기반이 되는 ‘무한한 사랑’이다. 그리고 이는 시종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쥬웨이와 가장 구별되는 청링얼만의 내적 우월성을 드러내는 기제로 사용되면서, 일면 여성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으로 읽혀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여성으로서의 본능적인 혹은 개인적인 욕망은 결국 홀시되고 말았다는 것을 장지애는 간과하고 있는 듯하다.

흥미로운 것은 장지애가 보는, 여성이 자기희생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근간이 남성에 대한 존경과 숭배이며, 그들은 여성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된다는 점이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는 그의 그 강인한 정신적 역량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끌어당긴 게 분명하다. (중략) 그렇다. 어머니는 틀림없이 그를 숭배한 것이다. 어머니가 그랬다. 만약 그를 숭배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랑은 하루도 지탱해 나가지 못했을 거라고(장지애, 1997(2권): 377).

이러한 경향은 세 여성의 일과 사랑과 결혼을 묘사하고 있는 장지애의 또 다른 작품 『방주』에서도 나타난다. 차오징화(曹荊華)는 아이 낳고 같이 자고 집안일 해주는 것이 결혼의 전부라 여기는 폭력적인 남편과 이혼했고, 아내를 “성의 화신”으로 여기는 남편과 이혼한 리우첸(柳泉)은 자신을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여기는 직장 상사 때문에 괴로워하며, 무능력한 남편과 별거 중인 량첸(梁倩)은 사회적인 성공과 여성으로서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이처럼 이들은 전통적인 여성 섹슈얼리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여성 자아를 꿈꾼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여성의 육체는 철저히 배제되어 있으며, 이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랑은 “바람과 비를 막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으로 형상화된다.



즉, 이들이 추구하는 사랑 가운데에서도 남자는 정신적인 지주로 존재하는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세 여성들이 성공적인 사회 진입을 추구하는 과정과 중첩되어 나타나면서, 이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의미 안에 사회적 성공을 위한 디딤돌로써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에게 있어 사랑이 사실상 “그들의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혹은 주요한 길”(런이밍(任一鳴), 1997: 80)이라는 뜻이다. 끊임없이 자아 독립을 외치고,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여성들의 불합리한 삶의 현실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인식하고 있는 이 세 여성이 토로하는 사랑에 대한 이러한 바람은 분명 여성에 대한 사회의 벽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들 여성 내면에 각인된 타자성을 투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작품의 말미에서 사랑-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서의-을 얻지 못한 세 여성들이 그들의 희망을 아들에게 기탁하고, “여성들을 위해 건배”를 외치는 모습은 그래서 공허하게 느껴진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 장지에는 사랑 없는 결혼이나 도구화된 성은 거부한다. 그래서 그녀가 그려내는 여성들은 한없이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녀는 이들 여성들이 존재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외부(남성)에서 찾고 이를 정신적인 지주 또는 정신적인 사랑으로 미화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홀시되고, 심지어 그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랑을 제어하는 기제로까지 인식되고 있다. 즉, 장지에는 정신적으로 승화시킨 사랑을 통해 사랑이 없던 시대 진실하고 이상적인 사랑을 찾고자 했지만, 이는 여성 육체의 부재와 여성의 자기희생을 전제로 한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또한 그녀가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사랑의 이면에는 여성의 남성에 대한 의존성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당대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전통적인 성별 관념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 3. 모성의 발현과 여성 섹슈얼리티의 은폐

장지에와 달리, 왕안이의 붓끝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가부장적 관념과 부합되지 않는 금기와 일탈의 장이다(김은희, 2002). 미혼남녀의 혼전성교를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은 도시의 사랑』에서는 통상적인 사랑의 개념을 건너낸 동물적인 본능으로서의 섹슈얼리티를 체현하고 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죄악”이지만 “거부할 수 없는 환락”이다. 죄의식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헤어지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은 제어할 수 없는 인간 욕망의 무한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황산의 사랑』의 두 남녀가 보여주는 섹슈얼리티 역시 가부장적인 그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성은 수동적인 외피를 벗어내고 있으며, 혼외정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운명적인 사랑을 드러내는 매개이자 쾌락의 장이다. 『금수곡의 사랑』에서 섹슈얼리티는 일탈을 꿈꾸는 기혼여성의 욕망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편집기와 그녀의 남편은 이미 “성별적인 차이가 사라져버린” 무감각한 관계이다. 아내는 반복적인 일상과 무의미한 혼인생활에서 오는 무료함을 해소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하던 중, 출장차 루산(廬山)으로 떠났다가 뜻밖에 한 작가와 사랑에 빠지고 이를 계기로 여성으로서의 자신에 대해 새로이 자각하게 된다:

새로운 자신이 산 틈으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었다. 다시금 새로워진 생명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여자임을, 한 명의 여자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깨달았다. 여자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한 남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그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자신이 성별에 눈을 떴다고 생각했다(왕안이, 2001: 227).

사실 그녀가 사랑이라고 생각한 남자와의 관계—신성한 정신적 교류, 서로간의 강렬한 이끌림 등등—는 그녀만의 주관적인 환상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환상이 만들어낸 이 사랑을 통해 자아만족을 얻고 심지어는 여자자아를 회복하는 데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섹슈얼리티는 자아를 상실한 한 중년의 기혼 여성을 구원하는 도구이다. 왕안이는 홀시되거나 심지어 망각되기 쉬운, 중년 여성이 지닌 섹슈얼리티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안이가 여성 섹슈얼리티를 바라보는 시선은 긍정과 부정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의 기준은 전통적인 도덕관념이나 제도이다. 이는 그녀가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인간의 욕망으로서는 인정하지만 이것이 관념이나 제도에서 벗어날 때는 거세해버리는 데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작은 도시의 사랑』을 보자. 오로지 본능으로서의 욕망을 체현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섹슈얼리티는 금기를 깨뜨렸을 때의 쾌락과 흥분을 선사한다. 그런데 작가의 시선이 일탈적 성에 대한 부정에 무게가 실리면서 본디 쾌락의 장이었던 여성 섹슈얼리티는 제어할 수 없는 일종의 동물적인 본능으로만 남게 되어 죄책감만 더해 준다. 그래서 “이 행복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말해 주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들을 질투하게 만들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웠던” 그들은 “자기가 세상에서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만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이제 금기에 대한 저항과 인간적인 쾌락의 장이 아닌 도덕적인 규범과 본능적인 욕망이 갈등하는 지점으로 변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죄책감으로 결국 자살까지 결심했던 여자아이의 갈등 해소 방식인데, 여기에서 모성이 그녀를 구원하는 기제로 등장하고 있다. 모성으로 정욕을 억제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더 순결해지고 더 깨끗해졌다고 느끼고, 아이가 엄마라고 부르는 소리에 더할 나위 없는 신

성함과 장엄함을 경험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자아이에서 여성으로의 자아 상승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독립적인 자아완성을 위한 의미를 지닌 모성은 ‘아버지됨’을 거부하고 타락의 늪에 빠져 비참한 말로에 이른 남자의 부성과 대조적으로 그려지면서 일면 여성의 우월성을 암시하는 기제로 작용한다.

그러나 모성에 의한 여성 섹슈얼리티의 거세는 사회문화적인 질서에 대한 순응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머니됨’은 오래된 심리적 유산이며, 여성 섹슈얼리티의 억압과 모성의 발현은 가부장제에서 여성을 규정하는 한 방식으로 자리해왔다. 때문에 여성 서사에서 가부장제의 규범에 저항하는 방식은 왕왕 여성 섹슈얼리티의 발현으로 나타난다. 이때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당연히 가부장제에 부합되지 않는 일탈된 성이고 이는 여성의 자유로운 의지를 드러내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장치가 된다. 물론 자유로운 여성 섹슈얼리티의 구현이 곧 독립적인 여성 주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현대여성서사를 돌아보면, 출산의 도구나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만 제한되어 있던 여성 섹슈얼리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여성으로서기 위한 중요한 방편이었다. 왕안이가 이 작품에서 이왕의 여타 여성 글쓰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대담한 성 묘사를 통해 여성의 성적 욕망을 풀어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그녀는 1980년대 초반 애정서사가 차마 나아가지 못했던 ‘성에 대한 묘사’의 금기를 깬다. 하지만 결국 모성으로 여성 섹슈얼리티를 대체하고 있는 것은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그녀의 시선이 향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짐작케 한다.

이런 한계는 『황산의 사랑』에서 서로 상반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구현하는 두 여성을 통해서도 구현되고 있다. ‘금곡향의 여자아이’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에서 완전히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혼외련이 발각되어 남편에게 알려졌을 때에도 그녀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할 정도로 당당하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도구화되어 의무와 억압만이 존재했던 여성 섹슈얼리티는 “금곡항의 여자아이”를 통해 환희와 쾌락과 존재 인식의 장으로 재구성된다. 이는 특히 시종 인간적인 쾌락과 도덕적 죄의식 사이에서 흔들리는 남자 주인공과 대비되어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그녀를 제도와 관습에 저항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징으로 읽기에는 그 이면에 숨겨진 작가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진다.

그녀는 바깥에서 떠도는 소문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다. (중략) 그녀는 어리고 영리한 마음에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죄다 그녀를 질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미모와 사랑 받는 것을 질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도 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좋아하고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데, 자신들은 사랑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질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릇 여자는 남자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일이다(왕안이, 2002: 39).

인용문에서 보이듯, “금곡항의 여자아이”는 사회적인 시선에서 자유로운 것을 넘어서 오히려 그것-흥모든 비난이든 질투든-을 즐기는 것처럼 보인다. 흥미로운 점은 그녀가 사회적인 시선을 넘어설 수 있었던 힘이 기실 “죽기 살기로 쫓아다니는” 많은 남자들-그녀가 그들을 사랑하는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에 의해 얻어진 것이라는 사실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섹슈얼리티가 오로지 남성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완성되었던 것과 다름 아니다. 여기에 바로 “금곡항의 여자아이”가 지닌 여성 섹슈얼리티의 이중성이 놓여 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가부장적 관념과 제한을 벗어내고 있지만, 사실은 이를 내면화하고 있는. 결국 왕안이는 그녀의 사랑을 자살로 종결함으로써 그

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노출한다.

여성 섹슈얼리티가 도덕적 관념과 욕망의 충돌지점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떤 방안을 제시하기란 사실 쉽지 않다. 왕안이가 “금곡항의 여자아이”를 거세한 것도 가부장제에서 규정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윤리도덕 관념을 위반할 수도 없는 그녀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어쩌면 오랫동안 가부장제 사회에서 살다가 여성 해방의 노정으로 나아가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갖는 한계일수도 있다.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작은 도시의 사랑』에서 모성의 발현을 통해 여주인공의 도덕적인 억압을 해소했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모성이 섹슈얼리티를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금곡항의 여자아이”와 상반되는 여성 섹슈얼리티를 구현하는 남자의 “아내”를 보자. 남자의 나약함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하는 그녀와 그러한 그녀가 커다란 의지가 되는 남자의 관계는 부부관계라기 보다는 모자관계를 연상시킨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의존해온 남자가 갈구하는 아내로서의 여자가 바로 어머니와 같은 형상이라는 점은 이를 뒷받침한다. 이로 볼 때, 이 작품에서 “금곡항의 여자아이”는 여성을, “아내”는 모성을 상징하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다. 모성에 대한 여성주의적인 관점은 논하지 않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모성/여성 섹슈얼리티·도덕/반도덕의 모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왕안이는 양자가 서로 대립하면서 양립 불가하다는 것을 은연 중 드러내 보인다. 작품에서 나타나듯, 모성의 발현을 통한 여성자아의 완성은 사실 섹슈얼리티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섹슈얼리티를 통한 여성 자아의 완성 역시 모성을 희생해야 가능할 것이다. 이로 볼 때 왕안이는 ‘삼련’을 통해 이들의 병존이 불가하다는 것과 여성자아는 무엇을 택하든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여성의 존재론적 비극을 드러냈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모성이 섹슈얼리티를 대체하고,

왕안이는 결국 모성을 통한 여성자아의 완성을 택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심리에 순응하고 있다. 그녀에게도 여성 섹슈얼리티는 여전히 반(反)도덕적인 장으로 남아 있다는 의미이다.

#### 4. 모성과 여성 섹슈얼리티의 사이

티에닝은 섹슈얼리티를 통해 전통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그녀에 의한 여성의 성적 욕망의 언어화는 전통적인 문화 안에서 여성의 억압적인 현실과 그들의 타자화된 내면을 형상화하기 위한 한 방식이다. 가난하지만 “예쁘게 생긴” 탓에 생계를 꾸려 나갈 수 있었던 농촌 부녀와 역시 자신의 몸을 매개로 하여 스파이 노트도 서슴지 않는 그 딸의 삶을 그려내고 있는 『면화더미』는 성적 도구로 대상화된 여성 생명의 비극적인 순환을 잡아낸다. 『장미문』에서는 왜곡된 모녀관계를 통해 여성에게 가해진 성적 억압이 자신과 타인을 훼손하는 멍에가 될 수 있음을 서늘하게 보여주고 있다. 『보릿짚더미』는 전통적인 관념에 의해 대상화된 여성들의 삶과 이를 순응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체현한다. 그런데, 왕안이가 전통적인 여성 섹슈얼리티를 거부하면서도 결국 모성으로 회귀했던 것처럼, 티에닝 역시 전통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의 여성에 대한 억압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새로운 여성 섹슈얼리티의 수립에는 회의적이다. 상기한 작품들 중, 『보릿짚더미』는 이러한 그녀의 여성의식을 대변한다.

수확하여 쌓아놓은 보리더미를 “마치 불룩 솟아서 두근거리고 있는 유방과 같다”고 서술하면서 시작되는 『보릿짚더미』에서 드러나는 성적 은유는 상당히 선명하다. 탐스럽게 익은 보리와 등치된 “유방”은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성애적 젠더 공간으로서의 의미는 상실한 채, 모성

적 젠더 공간으로 기능한다. 물론, 작가가 밝혔듯이 “성의 의미는 아주 넓고, 위대한 모성애의 모성적인 면도 그 안에 있다”(자오옌(赵艳), 티에닝).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성적인 측면에 무게가 실리면서 여성자아가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즈냥을 보자. 결혼 후 3일 만에 전쟁터에 나갔다가 몇 년 동안 소식도 없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이혼을 요구했을 때 그녀의 첫 반응은 이혼하면 “누가 당신에게 신발을 만들어주고 양말을 챙겨 주냐”는 것이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을 찾아가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면서 동침을 요구한다. 아내로서 그녀의 존재 가치가 아이의 여부에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출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나아가 삶을 재생산하고자 하는 그녀는 전통적인 여성 관념에 의해 타자화된 형상이다. 하지만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우매함으로 비춰지는 게 아니라 생명에 대한 강한 욕구나 포용, 인내 등 긍정적인 모성으로 체현된다. 그녀의 유난히 “풍만한 가슴”과 “호주머니 같은 한 쌍의 살진 젖가슴”은 푸근하고 따스한 모성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면서 그녀를 긍정적인 어머니의 형상으로 부호화시키고 있다. 화얼의 아들 우성(五星)이 엄마를 잃고 난 뒤 따즈냥의 품에 안겨 그녀의 젖을 빨며 느끼는 편안함과 영원성은 영원한 안식처로서의 모성이 갖는 의미를 보여주는 예이다.

내가 따즈냥을 통해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성의 일면이다. 토지, 농촌과 여인 사이에는 영원불변의 모성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영양을 공급해주고, 우리들을 양육해준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을 때에 우리는 그녀들이 편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자오옌, 티에닝, 2004)

이처럼, 티에닝은 따즈냥에게 건강하고 긍정적인 모성을 부여함으로써 그녀의 타자화된 섹슈얼리티를 은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그녀의 우매함은 오히려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그녀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



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누구에게든 “안식처”가 되어 주기 위해 그녀가 억눌러야 했을 그 무엇에 대해 티에닝은 분명 인지를 하면서도 모성으로 슬며시 대체해버린다.

한밤중, 뚜완촌 사람들은 모두 따즈냥의 창에 비치는 불빛을 보았고, 그 방안에서 나는 물레 짓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왜 그녀가 끊임없이 물레질을 하는지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 크고 폭신한 베개가 그녀의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따즈냥에게 있어 캄캄한 밤을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는 것인지도 몰랐다. (중략) 그녀는 원래 더 많은 아이들을 낳았어야 했다. 그들이 맘껏 그녀를 빨아먹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슬픔과 기쁨, 고통과 즐거움을 던져주도록 말이다(티에닝, 2006: 93).

출산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지청(知青)<sup>5)</sup>인 천샤오핑도 예외가 아니다. 자신을 버린 남자의 아이를 원하는 천샤오핑은 무늬만 지청인 따즈냥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두 여성의 동일한 내적 자아에 대한 작가의 상반된 시선이다. 동일한 장면—남자를 찾아가 동침을 요구하는—에 대한 완전히 다른 서술방식을 살펴보자. 따즈냥은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남편에게 전달하는데, 이 때 그녀의 모습은 오로지 생명에 대한 강인한 욕구만이 드러난다. 또한, 모성적 젠더 공간이었던 “호주머니 같은” 가슴도 성애적 젠더 공간으로 치환되어 “가득하고, 볼록 솟구쳐, 터질 것만 같았다. 그를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그녀의 욕구 앞에서 오히려 남자가 위축되어 나타나고, 그녀의 몸은 당당하고 생명력 넘치는 매력을 발산한다. 반면, 울면서 매달리는 천샤오핑은 스스로를 생육의 도구로 삼는 타자화된 여성의 전형을 보여준다. 특히,

5) 지청은 문화대혁명 시기 산골이나 농촌으로 하방(下方)된 도시 청년들을 가리킨다.

잡은 말줄임표와 확인을 요하는 대화방식은 자신 없고 머뭇거리는 그녀의 내면을 투영하고 있다.

그녀는 그의 발아래 엎드렸다. 보리 더미 옆에 반쯤 누운 모양이었다. 팔로 그의 양 다리를 죽어라 껴안고 부들부들 떨면서 그저 흐느끼기만 했다. 루예밍은 그녀의 팔에서 바로 빠져나오지 못했다. 그는 최대한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고개를 숙이고 그녀에게 물었다.

“너……너 아직 무슨 할 말 있어?”

“있어.”

“그럼 얘기해 봐.”

“다 들을 때까지 가면 안 돼.”

“안 가.”

“정말 안 가?”

“정말 안 가.”

“나 …… 너랑 이렇게 헛되이 끝낼 수 없어.”

“네 말을 이해 못 하겠는 걸.”

“나 …… 네 아이를 낳고 싶어.”(티에닝, 2006: 101)

이런 그녀의 모습은 가련하다기보다는 비굴해보이기까지 하다. 이 때 티에닝은 루예밍(陆野明)의 입을 빌어 그녀에 대한 혐오감을 가차 없이 드러낸다. 아이 갖기에 대한 동일한 욕망이 따즈냥에게는 생명력 넘치고 선량한 모성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승화되고 있는 반면, 천샤오핑에게는 자아 상실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그녀가 구현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혼전 성교로 인해 비판을 당할 위기에서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전혀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차가운 시선을 받으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은 일면 독립적이고 주동적인 여성 섹슈얼리티를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신을 거부하는 남자에게 “나는 당

신 것”이라고 매달리는 그녀와 “너는 너 자신의 것”이라고 차갑게 응수하는 남자의 모습은 이러한 그녀에 대한 티에닝의 부정적인 시선을 엿보게 한다. 티에닝이 보기에, 새로운 시대의 지식여성인 천샤오핑은 능히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 때문에 몸을 버린 부정한 여자에 불과하다. 따쓰냥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티에닝의 시선에서 성애적 젠더 공간으로서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모성적 젠더 공간을 담보로 한다. 다시 말해, 여성 섹슈얼리티는 자아 만족이나 개인의 욕망과 연결되는 지점이 아니라, 전통적인 부덕(婦德)이나 재생산 등과 한 지점에 놓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모성적 젠더 공간이 결핍된 천샤오핑의 여성 섹슈얼리티는 타락과 부정과 방종의 상징일 따름이다.

천샤오핑이 구현하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작가의 부정적인 시선은 또 다른 지칭인 양칭(楊青)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루예밍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는 양칭은 가감 없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는 천샤오핑과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섹슈얼리티가 사회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곧 사회적인 규범과 윤리의식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상기해보면, 천샤오핑은 반사회적이며 반윤리적인 섹슈얼리티를 보여주는 반면 양칭의 그것은 전통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에서 이탈하지 않은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의 전형이다. 양칭이 혼전 성교를 한 천샤오핑을 고발하면서 동료들의 비난을 염려했지만 오히려 공감과 찬사를 얻는 모습은 천샤오핑 아니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작가의 관점을 짐작케 한다. 즉, 티에닝 역시 여성 섹슈얼리티를 도덕과 반도덕이 부딪히는 장으로 보고, 여성 섹슈얼리티를 은폐함으로써 사회문화적인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왕안이와 달리 그녀는 모성을 통한 여성자아의 완성을 추구하지는 않는다. 따쓰냥의 모성이 결국 박탈당한 것<sup>6)</sup>, 양칭이 따쓰냥과

심리적 현실적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그녀가 따쓰냥식의 원시적인 모성을 동경하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데에 있어서는 갈등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념적인 사회문화적 질서가 가부장제 하에서 양산된 것이라는 사실을 동시대 다른 여성작가들보다 더 깊이 마음에 두고 있다는 반증이다.

## 5. 나오면서

인성의 회복이라는 1980년대 중국의 문학적 지향점을 고려해 볼 때, 섹슈얼리티에 대한 묘사는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황폐해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상실한 인간성을 귀환시키기 위한 한 방안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장지에, 왕안이, 티에닝이 체현하고 있는 여성 섹슈얼리티는 본능적인 욕망과 도덕적인 규범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근원적인 고민을 짚어내는 상징이기도 하다. 이로 볼 때, 이들은 여성 섹슈얼리티를 통한 인간성 탐색을 구현함으로써 여성담론을 시대적인 담론과 융합해냈다고 할 수 있다. 여성문제에 천착했던 1920년대 여성작가들이나 시대문제에 주목했던 17년 시기 여성작가들과 비교해 보자면, 이들은 분명 여성서사의 지평을 확대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이들의 작품을 읽어보았을 때, 이들 역시 벗어나지 못한, 여성들에게 드리워진 전통적인 관념의 어두운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의 작품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는 도덕/반도덕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장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 섹슈얼리티

---

6) 그녀의 딸 따쓰는 뜻밖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우싱은 친부모에게로 돌려보내진다.

는 반도덕적이자 반사회적인 것으로 전락함으로써 전통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식을 벗어내지 못했다. 장지에는 정신/육체-도덕/반도덕의 모식 속에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정신적인 사랑으로 승화시켰다. 또한 여성의 자기희생과 헌신을 여성성의 내적 가치로 제시하면서 여성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하지만 그녀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사랑은 여성의 의존성과 타자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여성의 욕망은 부재한다. 왕안이와 티에닝은 장지예와 달리 욕망을 회피하진 않았지만 모성/여성-도덕/반도덕이라는 전통적인 여성 섹슈얼리티의 모식을 답습, 모성을 도덕적인 관념과 등치되는 여성적인 코드로 설정하면서 여성 섹슈얼리티를 은폐했다. 이들 여성작가들이 보여주는 이러한 한계는 일면 여성 섹슈얼리티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인 벽이 여전히 닫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들이 지녔던(지금도 지니고 있는) 작가적 역량과 여성의식을 고려해보자면, 이들조차도 벗어내지 못한 이러한 전통적 관념의 그림자가 더 크고 무겁게 느껴진다.

어찌되었든, 이들이 여성 섹슈얼리티를 다각도로 탐색해 들어감으로써 1990년대 이후 천란(陈染), 린바이(林白), 웨이웨이 등의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를 통한 자기발견의 서사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명하며, 여기에 이들 글쓰기의 의미를 둔다.

(원고접수: 2009. 10. 2 게재확정: 2009. 11. 6)

## 참고문헌

- 김은희(2002), 『중국 신시기소설의 문학적 공간 연구-여성의 몸을 중심으로』, 『중국현대문학』, 중국현대문학회.
- 조영미 외(1999), 『섹슈얼리티 강의』, 서울: 동녘.
- 최수완(2006), 『강신재 소설의 여성 섹슈얼리티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Braidotti, Rosi(1994), *Nomadic Subjects: Embodiment and Sexual Difference in Contemporary Feminist Theory*, 『유목적 주체』, 박미선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4.
- Giddens, Anthony(1993),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현대사회의 성·사랑·에로티시즘』, 배은경, 황정미 옮김, 서울: 새물결, 2002.
- 张洁(1997), 『张洁文集1-4』, 北京: 北京出版社.
- 王安忆(2001), 『三恋』, 北京: 浙江文艺出版社.
- 铁凝(2006), 『永远有多远』,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 许志英, 丁帆主编(2003), 『中国新时期小说主潮』,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 周作人(1998), 『周作人散文类编五』, 长沙: 湖南文艺出版社.
- 任一鸣(1997), 『中国女性文学的现代衍进』, 台湾, 青年书屋.
- 盛英主编(1995), 『二十世纪中国女性文学史·下』, 天津: 天津人民出版社.
- 赵艳, 铁凝(2004), 『对人类的体贴和爱-铁凝访谈录』, 『小说评论』, 1期
- 邹巖(2003), 『性愛: 當代女性文學的基点及其缺失』, 『理論與創作』, 2期.
- 趙樹勤(2001), 『當代女性愛慾書寫的歷史演變及其審美特徵』, 『中國文學研究』, 2期
- 朱青(1999), 『当代爱情小说的历时性研究』, 『文艺评论』, 2期.

<Abstract>

## A Study on Sexuality in Chinese Female Novels from the 1980s with a Focus on Zhan-Jie, Wanga-AnYi, and Tie-Ning

Eun-Jeong Choi

This study focuses on sexuality in Chinese female novels from the 1980s. It targets on the works of Zhang-Jie, Wang-AnYi, and Tie-Ning. Women's sexuality is a place of ethnic and anti-ethnic encounters in their works. In this process, as the sexuality of women was regarded as anti-ethnic and antisocial, it was hard to recognize women's sexuality. On the other hand, reflecting China's cultural aim of recovering humanity in the 1980s, sexuality is away of restoring that lost humanity. In this regard, women's sexuality is a symbol drawing out humanity's essential distress that constantly conflicts between extinctive desires and ethnic standards. It is the union of women's discourse and historical discourse by humanity seeking women's sexuality. Compared to those by female writers who dealt with women issues in 1920s or who wrote about the problems from 1949 to 1966, these three authors extend the horizon of the female epic.

**Key words:** 1980s, women's sexuality, ethnic/anti-ethnic, desire, humanity.